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28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비상대책과	담 당 자	• 비상대책팀장 권경호 ☎440-5761 • 담당자 남지현 ☎440-57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北 무인기 영공침범에 따른 지역안보상황 점검
- 유정복 시장, 17사단 방문해 위기상황 대처 위한 관·군 협력방안 논의 -

인천광역시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책임 부대인 17사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서해 포격 도발 등으로 주민 불안과 위기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안보상황 점검과 함께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유시장은 17사단으로부터 지역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관·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비상상황 및 동계훈련 등으로 수고가 많은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1대)과 오후(4대)에 걸쳐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일대에서 잇달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무인기의 MDL 침범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도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는 지역 군부대와 ‘CCTV 영상정보 상시제공을 위한 업무협정’, 지역방송사와 ‘비상대비 방송 업무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등 민·관·군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제소 상황반을 2명 3교대에서 4교대 체계로 변경하는 등 자체 비상대비시스템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시장은 17사단 지휘부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극도로 긴장했을 시민들이 걱정된다”며,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무인기 출현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노력과 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히 지역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데 이어 “엄중한 안보상황 중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인천을 호국보훈 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비상대비 군(軍)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7사단 방문에 이어 인천해역방어사령부, 9공수여단 등 지역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12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